

이동의 자유.

전주·익산 교통약자 차량공유 협동조합 설립 제안

제안: 구백살닷컴(900sal.com)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100대

1단계 시범 운행

1,000대

2단계 확대 목표

2개 도시

전주·익산

01 제안 배경 — 거절당하는 이동

전주와 익산의 장애인·고령자에게 이동은 여전히 '허락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일반 택시에서 승차를 거부당하기 일쑤이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평균 대기시간이 길어 병원 진료 하루가 '이동 협상'으로 소진됩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전북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02 사업 개요 — 자율주행 차량공유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FSD) 차량을 선(先)제공받아, 협동조합이 교통약자 우선 호출형 공유차량으로 운영합니다. 이용자는 전화 또는 900sal.com 플랫폼으로 호출하고, 차량은 거절 없이 배차됩니다.

- 1단계 — 전주·익산 시범 운행 100대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
- 2단계 — 성과 검증 후 전북 전역 1,000대 확대
- 차량 도입 협상은 테슬라 본사에 공식 제안 (영문 제안서 기작성, 별첨)

03 협동조합 구조 — 지역이 주인

조합원: 전주시·익산시(공공), 장애인단체, 노인복지단체, 그리고 시민 조합원.

운영 수익은 배당이 아니라 차량 확대와 요금 인하에 재투자됩니다.

- 지자체 — 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산 연계, 샌드박스 공동 신청
- 장애인·노인복지단체 — 수요 조사, 시범 이용단 구성, 접근성 자문
- 협동조합 —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전북 시범지구) 신청 주도

04 자원과 상환 계획

차량은 테슬라로부터 선제공받는 것을 협상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 도입 후 12개월 내 원리금(이자 포함)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합니다.

- 운임 수익 — 교통약자 우선 배차 + 일반 시민 카셰어링 병행 운영
- 복지예산 연계 — 기존 특별교통수단·바우처 예산을 협동조합 서비스로 전환 집행
- 조합 출자금 — 기관·시민 조합원 출자 및 사회적금융(사회혁신기금 등) 활용

05 기대 효과

- 거절 없는 이동 — 호출 즉시 배차, 평균 대기시간 대폭 단축
- 지역 일자리 — 차량 관리·충전·정비, 교통약자 동승 도우미 등 신규 고용
- 지역 브랜드 — 현대차보다 먼저 자율주행이 상용 운행되는 '대한민국 자율주행 1번지, 전북'
- 데이터 자산 — 교통약자 이동 데이터 기반의 복지·교통 정책 고도화

06 추진 일정 (로드맵)

- 2026. 6. — 발기인 모임,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 2026. 7~8. — 협동조합 설립 등기,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신청
- 2026. 4분기 — 테슬라 본사 공식 협상, 수요 조사 완료
- 2027. 상반기 — 1단계 100대 시범 운행 개시 (전주·익산)
- 2028. — 2단계 1,000대 확대, 전북 전역 서비스

07 참여 요청 사항

- 전주시·익산시 — 설립 협약 참여, 복지예산 연계 검토, 샌드박스 공동 신청
- 장애인단체·노인복지단체 — 조합원 참여, 이용 수요 조사, 시범 이용단 추천
- 시민·기관 — 조합원 출자 참여 (1좌부터 가능, 약정서 별도 안내)

이동이 자유로워질 때, 삶이 시작됩니다.

문의 — 구백살닷컴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 900sal.com

전화 041-753-6567 · 이메일 alp1991@naver.com